

STRATEGY 21

통권40호 Vol. 19, No. 2, Winter 2016

태평양 전쟁 전 미일관계와 현재의 미중관계 비교를 통한 미중간 전쟁 발발 가능성에 관한 연구*

김 태 성**

I. 서론

II. 이론적 고찰

III. 태평양 전쟁 전 미일관계와 현재의 미중관계 비교 분석

IV. 결론

* 본 논문은 제7회 해양학술 논문공모 우수작으로 선정된 것임.

** 해군소령(해사 60기), 해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 교관.

I. 서론

과거 태평양을 두고 미국과 일본간 전쟁이 발발하였듯이 최근에 태평양에서 미국과 중국간 패권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미중간 갈등 양상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태평양 주변 해역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을 확립하여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중국과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미국이 첨예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의미이다.

국제사회는 미중관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먼저 비관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인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는 중국의 부상을 강대국의 부상이라는 세력전이이론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강대국들은 자국의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본능적으로 패권에 관심이 있으며 국제사회를 자국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고 한다. 중국도 이와 같은 강대국의 속성 및 역사적 전례의 예외가 아니라고 본다. 특히, 경제발전이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전용될 가능성이 크며 아시아의 전통적 강국인 중국은 지역에서 패권국가의 위상을 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미중간 갈등이 전쟁의 발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며 중국이 군사력을 급속히 증강시킬 경우 중국의 도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미국의 대중 압박정책은 시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¹⁾

다음으로 낙관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인 샴보(David Shambaugh)는 “중국의 국력과 영향력 증대는 미국의 희생을 불러 오는가?”, “지역 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국익과 정책은 일치하는가 아니면 서로 다른가?”와 같은 기본적인 의문에 대해 중국의 부상이 미국의 상대적인 쇠퇴를 가지고 온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의 성장에 대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²⁾

1)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Norton, 2003), pp.373-377, 396-402. 이외에도 Andrew F. Krepinevich, Jr, “How to Deter China: the case for Archipelagic Defense”, 『Foreign Affairs』 94(2) (2015); Ashley J. Tellis, “CFR Report: U.S. Strategy should Balance not Assist China’s Ris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15).

2) David Shambaugh, “China Engage Asia”, 『International Security』 29(3) (Winter, 2004/2005), pp.64-99. 이외에도 Zheng Bijian, “China’s Peaceful Rise to Great-Power Status”, 『Foreign Affairs』 84(5) (2005).

위와 같이 미중관계에 대한 평가는 학자마다 상이하다. 즉 어느 관점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리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미중관계를 전망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이며, 실제로 미중관계는 갈등과 협력의 모습³⁾을 복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글은 기존의 연구에서처럼 미중관계를 협력과 갈등의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검증된 이론을 가지고 과거 태평양 전쟁 전 미일관계와 현재의 미중관계를 비교하여 미중간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서 접근하고자 한다. 즉, 과거 태평양 전쟁 발발 전 미일관계와 현재의 미중관계를 폴 세네세(Paul D. Senese)와 존 바스케즈(John A. Vasquez)가 제시한 ‘전쟁단계이론(The Steps to War)’⁴⁾에 적용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함으로써 미중간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태평양 전쟁 전 미일관계는 미국과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1900년부터 일본의 진주만 공습(1941년 12월 7일)까지의 기간으로 설정했다. 현재의 미중관계는 아시아재균형 정책을 핵심적으로 추진해 온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해이면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시작⁵⁾한 해인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으로 설정했다.

글의 구성은 II장에서 세네세와 바스케즈의 전쟁단계이론을 살펴보고 이를 미일/미중관계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제시하겠다. III장에서는 전쟁단계이론을 바탕으로 태평양 전쟁 발발 전의 미일관계와 현재의 미중관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미중간 전쟁 발발 가능성을 살펴보겠다.

3) 최근의 미중관계는 안보 측면에서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 대규모 해상훈련, 남중국해 갈등과 미국의 미일동맹 강화 및 동남아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등으로, 경제 측면에서는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정책,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미국이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아시아개발은행(ADB)등으로 대립의 모습을 보였으나 동시에 2015년 6월 미중전략경제대화 개최, 7월 이란 핵 관련 합의 및 9월 미중정상회담에서 군군(軍軍)소통채널 설치 합의 등 협조의 모습도 보였다. 김원모, “미중관계의 이론, 실제, 전망”, 『글로벌정치연구』 제9권 1호(2016년), pp.154-155.

4) 왈츠(Kenneth N. Waltz) 이후 과학적 연구자들은 전쟁 발발 원인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해당분야의 일반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강대국들간 전쟁으로 대상의 범위를 축소하고 전쟁 발발로 가는 경로를 일련의 단계로 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에 따른 대표적인 결과가 세네세와 바스케즈의 전쟁단계이론이다.

5) 중국은 2008년 말에 들어 러시아 및 베트남과의 육상 국경 획정을 마무리지었다. 이어서 중국은 2009년 5월 외교부에 중국의 해양 국경 문제를 전담하는 변계 및 해양사무사(邊界與海洋事務局)를 설치하여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한국국방연구원의 세계분쟁정보사이트 World War Watch(<http://www.kida.re.kr/woww>)내 남중국해 분쟁을 참고함.

Ⅱ. 이론적 고찰

1. 전쟁단계이론

전쟁의 발발 원인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 왔지만 복합적 원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과학적인 연구로 세네세와 바스케즈의 전쟁단계이론을 들 수 있다. 전쟁단계이론은 전쟁 원인의 복잡성으로 인해 일반화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1816-2001년 사이에 ‘강대국들간 전쟁’으로 대상의 범주를 축소하고 전쟁 발발로 가는 경로를 일련의 단계로 구성 후 각 단계별로 원인을 찾아냄으로써 전쟁 발발의 전형적 경로를 설명하고 있다. 해당이론은 전쟁이 발발하는 전형적인 경로를 통해서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기준으로 사용되거나 정치 지도자들이나 대중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역사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데 기여하고 있다.⁶⁾

세네세와 바스케즈가 주장한 전쟁단계이론은 기존 전쟁 발생 원인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다변수형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전쟁단계이론은 ① 영토분쟁(Territorial Disputes) ② 외부동맹(Outside Alliance) ③ 경쟁관계(Rivalry) ④ 군비경쟁(Arms Race) 과 같은 4가지 요소를 국가간 전쟁 발생 가능성(종속변수)을 높이는 독립변수로 상정하였다. 즉, <표 1>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전쟁단계이론은 영토분쟁을 하고 있는 두 국가가 타국과 동맹을 맺고 있고 양국이 경쟁관계이며 군비경쟁을 하고 있을 경우에 두 국가간 5년 이내 전쟁 발발 확률이 90%에 이른다는 것을 밝혀냈다.

6) Paul D. Senese and John A. Vasquez, *The Steps to War: An Empirical Stud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pp.7-8, 269-276.

〈표 1〉 영토분쟁을 하고 있는 국가간 전쟁 발발 가능성 지표(5년 이내)

전쟁 발발 촉진 요소	전쟁 발발 가능성 (5년 이내)	위험단계
영토분쟁, 외부동맹, 경쟁관계(20년 내 15회 이상 군사분쟁), 군비경쟁	90%	4
영토분쟁, 외부동맹, 경쟁관계(20년 내 15회 이상 군사분쟁)	65%	3
영토분쟁, 외부동맹, 경쟁관계(20년 내 6회 이상 군사분쟁)	55%	
영토분쟁, 외부동맹	45%	2
영토분쟁	15%	1

출처 : Paul D. Senese and John A. Vasquez (2008), pp.272-273.

우선 영토분쟁은 특정영토의 주권행사에 대한 국가간 이견의 존재 유무로 평가할 수 있다. 즉, ‘특정영토가 어느 국가에 속하는지’, ‘경계선은 어떻게 그려져야 하는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⁷⁾ 두 번째 외부동맹은 분쟁 당사국들이 맺고 있는 동맹국이 인접지역에 위치하거나 강대국일 경우 군사력 사용의 가능성이 증가한다.⁸⁾ 세 번째 경쟁관계는 분쟁국가간 군사분쟁(MID: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의 반복횟수로 평가했는데 20년간 국가간 군사분쟁이 6회 이상 발생했다면 이는 양국이 경쟁관계임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여기서 군사분쟁은 ① 무력사용에 대한 위협 ② 군의 현대화, 전진배치 ③ 실제 무력 사용까지를 포함한다.⁹⁾ 마지막 군비경쟁은 최소 3년간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이 8% 이상일 경우로 측정하였다.¹⁰⁾

서로 대립하는 국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영토문제와 관련된 것은 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더 높다. 왜냐하면 영토 관련 문제는 본질적으로 민감한 사안인데다가 국내 여론도 강경한 태도를 보이므로 분쟁 당사국들이 서로 타협하기가 어렵고 분쟁이 지속되면 국가는 상대국가에게 군사력을 통해서 위협하거나 또는 실제로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7) *ibid*, p.12.

8) *ibid*, pp.66-69.

9) *ibid*, p.58.

10) *ibid*, p.71.

이런 영토분쟁이 반복해서 일어나면 분쟁 당사국 사이에 경쟁의식(sense of rivalry)이 생겨나고 국가는 자신의 국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외부 동맹을 체결하거나 자체 군사력을 증강한다. 이에 상대국가 역시 대응동맹(counter-alliance)을 체결하고 자국의 군사력을 증강함으로써 양 국가간에 군비경쟁이 유발된다. 이러한 균형행위는 때로는 전쟁을 예방하기도 했지만 일단 영토분쟁이 시작된 상황에서 균형행위들은 국가간 갈등을 심화시킴으로써 국제위기가 발생하고 국가들의 물리적 위협 정책이나 상호간의 적대감 상승, 강경파의 존재 등 국가 수준의 변수가 작동하면서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¹¹⁾

2. 전쟁단계이론의 적용

그렇다면 전쟁단계이론을 미일/미중관계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아래 <표 2>에서와 같이 미일/미중관계 분석 지표를 제시해 보았다.

<표 2> 미일/미중관계 분석 지표

변 수	미일관계	미중관계
영토분쟁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대립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대립
외부동맹	미국의 연합국 지원과 삼국동맹	미일/한미동맹, 북중동맹
경쟁관계	군사전략, 항공모함 건조 현황	미중 분쟁사례, 해군력 현대화 및 전진배치
군비경쟁	국방비 증가율, 해군력 증강 양상	국방비 증가율, 해군 함정 건조 계획

먼저 미일관계 분석 지표를 살펴보면 영토분쟁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양국의 이견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외부동맹은 당시 미국의 연합국에 대한 지원과 일본이 체결한 삼국동맹을 비교하였다. 경쟁관계는 양국의 군사전략과 항공모함 건조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군비경쟁은 당시 양국의 국방비 증가율과 태평양 전쟁시 핵심 요소로 작용했던 해군력의 증강 양상을 함께 분석하였다.

11) *ibid.*, pp.1-3.

다음으로 미중관계 분석 지표를 살펴보면 영토분쟁의 경우 남중국해 분쟁을 다루었고 외부동맹은 미일/한미동맹과 북중동맹을 비교하였다. 경쟁관계는 2009년부터 남중국해에서 발생했던 양국간 군사적 분쟁 사례와 해군력의 현대화 및 전진배치를 제시하였다. 군비경쟁은 양국의 국방비 증가율과 향후 해군 함정 건조 계획을 비교하였다.

Ⅲ. 태평양 전쟁 전 미일관계와 현재의 미중관계 비교 분석

1. 태평양 전쟁 전 미일관계 분석

가. 영토분쟁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의 패권이 약화되면서 미국이 세계적인 패권국으로 부상하여 영국을 대신하기 시작하였고 일본은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통해서 동북아시아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게 된 미일 양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 우선 당시 미국의 상황을 먼저 살펴볼 것이다. 미국은 독립 이후 먼로주의로 대표되는 고립주의 정책을 고수하였다. 이러한 고립주의는 미주 대륙 내에서 미국의 영토 확장에 대한 유럽 강대국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그러나 미주 대륙 내에서 영토팽창이 일단락 되자 미국은 태평양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미국은 1867년 8월 미드웨이 군도를 점령하고, 1878년에는 사모아 군도의 파고파고, 1887년에는 진주만을 해군기지로 획득하였다.¹²⁾

미국의 태평양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1890년대가 되면서 미국 내에서 팽창주의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알프레드 마한(Alfred Thayer Mahan)과 디오도어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등은 팽창주의의 중심인물들로서 북미

12) Clyde and Beers, *The Far East: A History of the Western Impact and the Eastern Response, 1830-1965* (Englewood Cliff New Jersey: Prentice-Hall, 1966), pp.193-195.

대륙 전체의 지배, 대양을 연결하는 운하 건설, 하와이 등의 해외기지 확보, 태평양 지배를 주장하였다. 미국 내에 팽창주의적 경향이 강해진 것은 산업발전에 따른 해외시장 확장의 필요성 증대, 미주 대륙 내에서 영토 팽창이 일단락 되어 국내의 미개척 영역이 사라진 것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미국 내에서 팽창주의가 발호하는 계기가 된 것은 쿠바를 둘러싼 스페인과의 갈등이었다. 팽창주의자들은 스페인에 대한 미국민의 감정을 이용하여 스페인이 확보하고 있던 필리핀을 확보해야 함을 주장하였고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필리핀을 점유하면서 아시아에 이해관계를 가진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것이 미국이 동북아시아에 문제에 깊이 개입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미국은 중국 대륙에 인접한 필리핀을 영유하게 됨으로써 대중정책을 확립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미국 경제에서 중국 시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1890년 당시 미국 대외무역의 약 90%는 유럽에 의지하고 있었고 아시아 지역과는 불과 5%만의 교역이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1895년부터 1900년 사이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785달러에서 2,411만 달러로 증가했고, 대중국 투자도 700만 달러에서 1,750만 달러로 증가하게 되는 등 미국은 중국에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국가로 변화하고 있었던 것이다.¹³⁾ 하지만 당시 열강들은 중국을 이미 여러 개의 세력권으로 나누어 자국 세력권 내에 다른 나라가 경제적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펴고 있었다. 열강들은 세력권을 상호 인정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자국의 이익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고 믿었다. 미국이 스페인과의 전쟁을 통해 극동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할 무렵 중국은 이미 세력권의 미명하에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¹⁴⁾로 전락해 있었다.

이에 미국은 열강의 세력권 틈새를 비집고 극동에 진출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열강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진출 방법을 모색했다. 이른바 문호개방정책(Open Door Policy)은 이런 고려의 결과에서 나온 것이다. 1898년 존 헤이(John Hay) 미국 국무장관의 명의로 열강에 전달

13) 백영서, 『동아시아의 지역질서-제국을 넘어 공동체로』 (서울: 창비, 2005), pp.145-146.

14) 1898년 독일의 자오저우 만 조차로 시작된 열강의 중국 분할 경쟁은 러시아의 랴오둥 반도 조차, 영국의 웨이하이웨이 조차로 이어지면서 중국은 여러 열강의 세력권으로 분할되어 갔다. 이러한 이권 쟁탈에 참여하지 못한 후발 주자가 미국과 일본이었다. 미국은 만주와 중국 북부 지역을 포함하여 중국 시장에서 자국의 상업적 기회와 경제적 이익이 차단될 위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김기정,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의 역사적 원형과 20세기 초 한미관계 연구』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3), p.106.

된¹⁵⁾ 문호개방정책은 중국이 개방한 22개 항구가 모든 국가에 공평하게 개방되어야 할 것과 중국의 특정 국가들에 대한 특혜 관세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해당 정책은 공정한 자유주의적 국제 경제 질서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를 통해 미국이 중국 무역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각국은 미국의 이같은 요구에 반대할 뚜렷한 명분이 없어서 모호한 답변만 보냈지만 일본은 명백히 반대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미국의 국무장관은 1900년 3월 열강이 그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일반적으로 공표했다.¹⁶⁾ 문호개방정책은 당시 유럽 열강이 독점하고 있던 해외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었고 대외 경제정책의 핵심이었다. 특히 중국에 대한 문호개방은 미국의 이익과 직결되는 상황이었다.¹⁷⁾

다음은 당시 일본의 상황을 살펴보겠다. 일본은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통해 동북아시아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강대국으로 떠오르게 되었으나, 워싱턴체제의 성립과 더불어 지역 패권국의 위치에서 한발 물러나야만 했다. 일본은 미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워싱턴체제를 수락하고 대중무력 팽창을 삼가겠다는 국제주의(國際主義)를 표방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이 팽창정책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일본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긴 하였으나 이 시기에 군부가 점차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여 문민정치(文民政治)에 도전함으로써 국제주의를 뒤엎을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또한 1920년대 급속한 산업화를 이룩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강력한 패권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구미국가들의 관심이 유럽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틈타, 아시아의 현상을 타파하고 제국주의적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였다.

1920년대 말부터 정치, 경제적 위기와 군국주의의 성장은 일본으로 하여금 만주와 중국에 대한 팽창정책을 추구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세계대공황이 파급되면서 일본 국내의 경제적 위기는 일본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시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민정당이 이러한 경제적 위기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1920년대 이후 온건 외교방침에 불만을 갖고 있던 군부는 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다. 당시 군부는 세계가 국제평화의 시대이기보다는 미국/영국의 제국주의자 혹은 소련의 공산

15) 1899년 9월 6일에 영국, 독일, 러시아에 보냈고 11월 3일에는 일본, 11월 17일에는 이탈리아, 11월 21일에는 프랑스 정부에 전달하였다. Clyde and Beers(1966), pp.209-210.

16) 백영서(2005), pp.145-146.

17) T.E. Vadney, *The World Since 1945* (Penguin Books Press, 1987), pp.27-28.

주의자들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간주하였다. 일본은 스스로가 국방력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만주와 몽고를 포함한 자급자족 체계를 확립하여 일본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났다.¹⁸⁾

이에 대한 실현으로 일본 군부는 1931년 만주사변을 통해서 만주국을 수립하고 중국으로의 침략을 더욱 확대하였다. 만주사변에 대해 국제연맹은 일본군의 신속한 철수와 중일 양국 관계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의 실시를 권고하고 리튼조사단을 파견하여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인 리튼보고서(Lytton Report)¹⁹⁾를 작성, 공표하게 된다. 일본은 리튼보고서에 대한 저항으로 1933년 3월 27일 정식으로 국제연맹을 탈퇴하였다. 또한 일본은 워싱턴체제가 규정하고 있던 해군 군축비율에 대한 불만과 중국문제에 대한 정책 불일치 등이 겹치면서 1936년 워싱턴체제를 이탈하여 무조약 시대로 돌입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일본은 더욱 고립되어 갔고 일본 국내에서는 국가주의자들의 발언권과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어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점점 중국으로의 팽창을 확대해 나가게 되었던 것이다.²⁰⁾

위와 같은 미일간 중국에서의 대립에 추가하여 동남아시아에 대한 미일간 대립의 과정을 살펴보겠다. 일본은 당시 미국, 영국, 네덜란드의 식민지에서 철, 구리, 석유 등을 수입하고 있었고 특히 석유의 해외 의존도가 높았다.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 자급자족적 경제권을 형성해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동남아시아, 특히 인도차이나와 인도네시아의 자원이 필요했다.²¹⁾ 1938년 이후 유럽 정세가 변화하자 동남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관심은

18) 허임, “세력전이 관점에서 바라본 태평양전쟁 원인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년, p.25.

19) 1931년 9월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중국을 침략하자 국제연맹은 그 해 12월에 영국의 리튼 경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리튼 조사단은 1932년에 일본, 만주, 중국 등지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10월 2일에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만주 사변을 일본의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만주국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일본은 만주국의 독립을 요구하며 반발하다가 국제연맹이 리튼 조사단 보고서를 채택하자 1933년 국제연맹을 탈퇴하였다. 황보중우 편저, 『세계사 사전』 (서울: 청아출판사, 2003), p.161.

20) 허임(2005), p.39.

21) 인도차이나는 동남아시아의 관문일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로 향하는 외부원조의 지점인 통킹만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은 인도차이나를 확보함으로써 전략적 기지를 확보하고 중국 정부를 압박하여 중일전쟁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본이 인도네시아에서 얻고자 한 것은 석유였다. 중일전쟁을 해결하고 향후 총력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석유는 필수불가결한 자원이었고 이외에도 고무, 주석, 니켈 등 주요한 자원을 해당지역에서 획득할 수 있었다. 오수진, “자원전쟁으로서의 태평양전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년, pp.64-65.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일본은 1940년 7월 22일 미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대동아 질서를 수립하는 목적으로 미영과의 전쟁을 예상한 동남아시아로의 남진정책을 국가의 최고방침으로 채택했다.²²⁾

이는 미국, 영국 및 네덜란드의 식민지에 대한 위협으로서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문제였다. 일본이 동남아시아를 장악하게 되면 미국은 고무와 주석 등 산업 및 무기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공급²³⁾을 일본에게 의존하게 되고 일본은 미국에 대한 석유 의존성에서 탈피하게 된다. 또한 이는 영국의 생존을 불투명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되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를 빼앗기면 영국의 생명줄인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로부터의 보급선 단절을 초래하게 되고 그 결과 영국이 붕괴하면 독일은 이미 빼앗은 프랑스 함대에 영국 함대를 더하여 대서양을 건너올 것이라고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서양 세력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아시아인의 해방을 위한 전쟁이라는 일본의 주장이 보다 정당성을 갖게 된다면 일본에 대한 통제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었다.²⁴⁾

위와 같이 일본의 만주침략과 중일전쟁, 동남아시아로의 남진은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미국에게는 잠재적으로 가장 큰 시장인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상실을 의미했으며 미국으로선 일본의 팽창을 결코 용납해선 안되는 상황이었다.²⁵⁾

나. 외부동맹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이전까지만 해도 국제적 개입을 경원시하는 고립주의 국가로 통했다. 미국은 자신을 유럽국가들과 차별화하는 데 익숙해 있었고 이러한 경향이 발현된 것이 바로 고립주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고립주의 전통은 멀리는 미서전쟁까지, 짧게는 제2차 세계대전 개입시까지 면면

22) 김경창, 『동양외교사』 (서울: 집문당, 1989), pp.822-824.

23) 미국은 풍부한 부존자원에도 불구하고 공업생산에 필수불가결한 일부 자원들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1940년에 미국은 세계 고무의 60%, 크롬의 45%, 주석의 40%, 망간의 36%를 소비하고 있었는데 그 대부분을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었다. 1920년대 이후로 동남아시아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되어갔다. Marshall, Jonathan, *To Have and Have Not: Southeast Asian Raw Materials and the Origins of the Pacific Wa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pp.2-7.

24) 이지원, “일본의 동아시아 패권정책과 미국의 견제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년, p.201.

25) 박재목, “태평양전쟁으로 가는 길”, 『호서사학』 제12집(1984), p.207.

히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전통적인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이 국제주의로 변화되는 역사적 계기는 여러 시점에서 발견될 수 있다. 미국의 경제적 대외팽창에 주목하는 시각에서 보면 미국의 고립주의는 사실상 미서전쟁과 이후 문호개방 정책 등으로 이어지면서 사실상 그 의미를 상실하는 것으로 파악된다.²⁶⁾

특히, 1940년 9월 일본이 독일과 이탈리아와 체결한 삼국동맹은 미국으로 하여금 기존의 고립주의에서 벗어나 추축국의 공세를 억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1939년까지만 해도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국 진영과 독일과 이탈리아의 추축국 진영, 그리고 미국, 소련, 일본의 중립진영으로 나뉘어 있던 국제체제는 그 동맹 체결로 인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연합국 진영과 독일을 중심으로 한 추축국 진영으로 양극화되었다.²⁷⁾ 루즈벨트는 1940년 12월 29일의 『노변정담(Firesides Chats, 爐邊清談)』에서 패권을 추구하는 유럽의 두 강대국과 아시아의 한 강대국이 역사상 최초로 미국을 위협하기 위한 동맹을 체결했다는 측면에서 “미국이 유래없는 위협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²⁸⁾

삼국동맹 체결 직후 미국의 루즈벨트는 무기대여법(Lend-Lease Act)²⁹⁾을 제안하여 중립법의 제한을 사실상 폐지했다. 그 법안은 대통령에게 무기를 대여, 공여, 판매, 교환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아직 그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영국과 미국의 장성들은 상호간의 자원을 공유하고 조직하기 위해 접촉했다. 그들은 미국의 전쟁 참여를 기정사실로 간주하고 계획을 구상했다. 이들에게 미국의 전쟁참여는 단지 시간의 문제였다.³⁰⁾ 1941년 초에는 미국이 아이슬란드 서쪽의 북대서양을 자국의 방어영역에 포함시키고 그 지역에 대한 해양순찰을 개시할 것이라고 영국에게 통보했으며 석달 후 미군은 현지 정부의 초청으로 아이슬란드에 상륙하여 영국군과 임무를 교대했다. 이어서 루즈벨트는 의회의 승인 없이 덴마크령 지역과 북아메리카 사이의 전지역을 서반구 방어체제의 일부로 포함시킴을 선언하였다.³¹⁾ 또한 미국은 모

26) 손병권, “루즈벨트와 미국의 국제주의로의 전환”, 『동서연구』 제19권 1호(2007), pp.35-36.

27) 이지원(2012), p.220.

28) Kim, Young Hum, *American Frontier Activities in Asia: US-Asian Relations in the Twentieth Century* (Chicago: Nelson-Hall, 1981), p.142.

29) 정확한 명칭은 미합중국 방위 촉진을 위한 조례(An Act to Promote the Defense of the United States)로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영국, 소련, 중국 등의 연합국들에게 막대한 양의 전쟁 물자를 제공할 수 있게 만든 법이다. 제1차 세계대전 때와 달리 이 법을 적용받는 전쟁 물자는 미국이 해당국에 무료로 운송하였다. 이 법은 미국이 세계대전에 직접 참여하기 약 9개월 전인 1941년 3월에 발효되었다. 그 이유는 영국이 전쟁과 공습으로 인해 경제가 피폐해져 더이상 무기를 구입하고 운송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법은 대일 승전일인 1945년 9월 2일에 만료되었다.

30) Henry Kissinger, *Diplomac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94), pp.388-389.

든 종류의 강철 및 고철 수출이 서반구 및 영국에게만 가능하도록 통제를 더욱 강화했고 9월 25일에는 외환 부족에 허덕이던 중국을 원조하기 위해 장래 채굴될 가능성이 있는 텅스텐을 담보로 2,500만 달러를 중국에 빌려주기로 결정했다. 영국 역시 일본의 요구에 의해 3개월간 폐쇄되었던 버마로드(Burma Road)에 의한 수송³²⁾을 재개한다고 밝힘으로써 적과 동지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ABC-1로 알려진 미국·영국·캐나다 참모 협정이 등장했고 여기에서는 “일본군을 말레이시아에서 끌어낼 것”을 결의했다.³³⁾

다음은 일본의 당시 상황을 살펴보겠다. 미국의 위와 같은 반응은 일본으로서는 확실히 불운한 것이었다. 당시 일본의 지도자들은 미국과 영국의 관계가 어느 정도 경쟁적이라고 보고 있었다. 그래서 일본이 동남아시아로 접근할 경우 주요 상대는 영국이 될 것이며 미국의 개입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고 가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삼국동맹을 체결하자 미국은 영국과 확고하게 결속했고 일본 지도자들은 더욱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다.³⁴⁾ 일본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정치적 현안이었던 삼국동맹 체결을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은 동남아시아 진격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억제하기 위해서였다. 현실적으로 미국을 억제할 수 있는 군사적 수단을 갖지 못했던 일본에게 삼국동맹은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졌다. 왜냐하면 중일전쟁이 예상과 달리 장기전의 양상을 띠었고 이에 따라 미국, 영국 등 서구 국가들의 경계심을 불러일으켜 일본의 국제적 고립이 더욱 심화되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일본, 독일, 이탈리아는 이미 3년 전 1937년 11월 방공협정을 통해 다소 공격을 위한 군사동맹을 체결했으며 1940년 독일군의 서부 유럽 석권으로 인해 다시금 미국과 영국에 대항하는 군사동맹을 강화하였던 것이다. 즉, 유럽에서 독일이 일방적인 승리로 서부 유럽을 석권하게 되자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와의 동맹을 통해서 일본이 추구하는 대동아 질서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³⁵⁾

31) *ibid.*, p.390.

32) 영국이 대중지원을 했던 수송로임.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동남아시아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고 1940년 6월 17일에 일본은 영국령 식민지에 대한 자국의 군사력 사용을 언급하며 영국에게 버마로드 폐쇄 및 대중원조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영국은 일본의 압력에 굴복하여 1940년 7월 12일부터 약 3개월간 해당 수송로를 폐쇄했었다.

33) 이지원(2012), p.221.

34) Dorothy Brog, Shumpei Okamoto eds, *Pearl Harbor as History: Japanese-American Relations, 1931-1941*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3), p.598.

35) 허임(2005), pp.53-54.

삼국동맹 조약국들은 “어느 한 체결국이 현재 유럽의 전쟁이나 중일전쟁에 연루되지 않는 한 국가에 의해 공격을 받을 경우, 정치·경제·군사적 수단을 총 동원해서 상호 원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선언했으며 ‘한 국가’는 미국을 지칭했다. 또한 그 협정이 체결되던 날 일본의 외무대신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미국과 영국이 “일본에 대한 중요 물자 수출 제한과 같은 수단으로 일본을 억압하고 일본의 적(敵)인 장제스 정권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국력을 고갈 시키려는 숨겨진 동기에 의해서” 비롯된 것으로서 일본은 이에 대해 “우리와 똑같은 열망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 독일 및 이탈리아와 단합” 함으로써 대응하는 것이라고 선언했고 삼국동맹이 “미국에 대항하는 군사동맹”이라고 천황에게 보고하였다.³⁶⁾

이상과 같이 미국은 삼국동맹 체결 이후 추축국의 위협에 대해서 아시아와 유럽을 연관시키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팽창정책을 단순히 아시아에 국한된 문제로 보지 않았고 미국은 점차 고립주의에서 벗어나 비교전국이지만 연합국과 중국에 호의적인 국가로 전환하게 되었다.³⁷⁾ 반면에 일본의 경우 삼국동맹의 체결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고 유럽의 독일과 이탈리아에 편승하여 대미 견제 및 중국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다. 경쟁관계

미국과 일본의 대립은 오랜 연원이 있었다. 미국과 일본의 갈등은 미국의 페리(Perry) 제독에 의해 강요된 개항, 불평등조약과 그 개정 노력의 실패, 삼국간섭, 러일전쟁 후 강화에 대한 실망 등으로 발전되어 왔는데 보다 직접적이고 본격적인 갈등은 러일전쟁 후 만주에서의 이권대립, 이민문제로 야기된 인종적 갈등³⁸⁾이 빚어졌고, 1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의 중국에 대한 21개조 요구³⁹⁾와 산둥성 독점,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일본의 舊독일령 도서의 위임통

36) 이지원(2012), pp.219-220.

37) 당시 미국의 경우 고립주의 외교정책의 영향으로 명시적으로 동맹을 체결한 국가는 없었지만 일본의 삼국동맹 체결 이후 적극적인 외교정책들을 통해 동맹에 못지않게 타국과의 협력관계를 보여주었다.

38) 1906년 4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커다란 지진과 대화재가 발생했는데 일부 백인들이 당시 미국으로 대량 이민와 있던 일본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학살하고 테러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미일간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정호섭, 『해양력과 미일 안보관계』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1), p.21.

치를 둘러싼 갈등,⁴⁰⁾ 만주사변, 일본의 미국 군함(USS Panay) 격침 사건, 중일전쟁 등으로 이어져 왔다.⁴¹⁾

여기서는 이에 추가하여 당시 태평양 전쟁 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미국과 일본의 군사전략과 이에 따른 양국의 항공모함 건조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당시 미국과 일본의 군사전략을 살펴보면 1907년 양국은 각자 상대방을 가상적국으로 상정하고,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군사전략을 수립하였다. 미국이 수립한 군사전략은 ‘오렌지전쟁계획(War Plan Orange, 이하 ‘오렌지계획’)’이며, 일본이 수립한 군사전략은 ‘일본제국국방방침(日本帝國國防方針, 이하 ‘국방방침)’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미일 지도부의 국제 정세 판단과 위협 인식이 서로 상당히 흡사했으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이 계획을 수립한 시기가 일치했다는 것이다. 당시 미국은 일본이 언젠가는 태평양에 있는 미국의 세력권을 공격하여 아시아에서 미국을 축출하려 할 것이라 가정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아시아로 세력팽창을 도모하는 일본의 야욕을 저지하고 미국의 세력권이 공격받을 경우 적극적 반격을 통해 일본의 침략행위를 격퇴한다는 전략 목표를 설정하였다.⁴²⁾ 오렌지계획에서 제시한 미일 전쟁 시 군사력 운용 방법은 태평양의 지정학적 형세를 고려하여 3단계로 나뉘었다. 전쟁 초기 1단계 작전 시 미국은 일본의 선제공격을 받을 경우 초기의 피해 회복 및 전력의 보존에 집중한다. 일본의 선제공격을 격퇴하고 공세를 개시하기에 충분한 전력을 확보하면 작전의 2단계로 전환,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태평양 중부의 도서들을 순차적으로 점령하여 일본 본토로 진격하기 위한 경로를 확보해 나간다고 계획하였다. 이후 전쟁의 최종 단계인 3단계 작전에서는 일본 본토 근해에서 주력함 간 함대결전을 통해 일본 주력함대를 격파하고, 최종적으

39) 특히 미국과 직접적인 마찰을 불러일으킨 것은 제5호인데 일본으로부터 무기의 일정량 이상 구입과 푸젠성에 관한 개발의 독점이 미국의 상공업에 대한 기회균등주의에 반하는 내용이었다. 가토 요코, 박영준 역, 『근대 일본의 전쟁논리: 정한론에서 태평양전쟁까지』 (서울: 태학사, 2003), pp.165-169.

40) 미국은 대중정책을 보장하기 위해서 열강의 해군력 투사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고 필리핀은 미국이 중국에서의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극동으로 해군력을 투사하는 완벽한 기지였다. 그래서 미국은 태평양 횡단항로를 보호하기 위해 일본이 구독일령 태평양 도서들을 요새화하거나 군기지화 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이행하는 데 실패하였고 일본이 그 섬들을 점령한 결과 미국은 향후에 심각한 전략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41) 김민석, “워싱턴 체제의 성립과정과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2, pp.71-72.

42) Edward S. Miller, *War Plan Orange: The U.S. Strategy to Defeat Japan, 1897-1945* (Annapolis, MD: Naval Institute Press, 1991), pp.40-41.

로 일본 본토를 봉쇄하여 일본 열도와 일본의 해외 식민지 간 해운을 차단, 일본의 경제력을 고사시키고 무조건 항복을 받아낸다는 개념이었다.⁴³⁾

일본 역시 러시아,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을 가상적국으로 상정하였고 그 중에서도 미국을 주적으로 설정하였다.⁴⁴⁾ 1918년 국방방침은 미국의 태평양 전략에 대항하기 위해 보다 상세한 전쟁계획인 전략대강으로 작성되었는데 여기서는 적대행위를 하는 초기 단계에서 루손의 미 해군기지를 장악하고 서태평양에서 오는 미 함대를 차단함과 동시에 결전으로써 격멸해야 함을 명기하고 있다.⁴⁵⁾ 이는 러일전쟁 승리에 따른 일본의 세력권 확장과 문호개방과 교역을 추구하던 미국과의 대립 관계를 반영한 조치였다.⁴⁶⁾

위와 같이 두 국가는 오렌지계획과 국방방침의 수립을 기점으로 태평양 지역에서 상대방의 세력평창을 견제하고 전쟁을 준비하였다. 양국의 군사전략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다분히 공세적이었으며, 특히 국방방침은 1941년 일본이 미국에 대해 개전을 결심하는 데 핵심적 원인을 제공하였다.⁴⁷⁾

다음으로 태평양 전쟁 전 양국의 항공모함 건조 현황을 살펴보겠다. 왜냐하면 위의 군사전략으로 인해 양국의 전쟁은 광활한 태평양에서 항공모함을 주축으로 하는 기동함대간 항공전 대결 양상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먼저 미국은 건조가 중단된 35,000톤급 순양전함들 중 렉싱턴(Lexington)과 사라토가(Saratoga)를 2년여 간의 개장 공사를 거쳐 1927년에 함대항공모함(fleet carrier)으로 취역시켰다. 사라토가급은 기준 배수량 38,500톤으로 동시대에 다른 국가 항공모함보다 많은 80여 대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었다.⁴⁸⁾

1934년에는 설계에서부터 항모로 계획된 레인저(Ranger)가 취역했다. 배수량 14,200톤에 약 70여 대의 함재기를 탑재한 레인저는 소형 항공모함의 운용 가능성을 보여줬으나, 함대를 보조하는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속력, 방어력, 물품수용력 면에서 한계를 보였다.⁴⁹⁾ 이후에는 기준 배수량 19,000톤으로 96대

43) George W. Baer, "U.S. Naval Strategy 1890-1945,"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44, No. 1(1991), p.18.

44) 후지와라 아키라, 서영식 역, 『일본군사사』 (서울: 제이앤씨, 2013), p.184.

45) 박경우, "해군군비경쟁과 전쟁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년, p.43.

46) 야마다 아키라(山田朗), 윤현명 역, 『일본, 군비확장의 역사: 일본군의 팽창과 붕괴』 (서울: 어문학사, 2014), p.185.

47) 황병선, 김현승, "태평양전쟁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함참』 제60호(2014), p.90.

48) Roger Chesneau, *Aircraft Carriers of the World, 1914 to the Present* (Revised Edition, London: Arms and Armour Press, 1992), p.201.

49) Norman Polmar, *Aircraft Carriers: A History of Carrier Aviation and Its Influence on World Events Vol. 1, 1909-1945* (Dulles: Potomac Books, 2006), p.74.

의 함재기를 운용할 수 있는 요크타운(Yorktown)과 엔터프라이즈(Enterprise)가 1937년과 1938년에 각각 취역했으며 뒤이어 15,000톤급의 와스프(Wasp), 요크타운급 세 번째 항공모함인 호넷(Hornet)이 각각 취역하였다.

또한 미국은 태평양 기지로의 항공기 수송, 수송선단 호위 등의 임무를 수행할 보조 전력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민간 화물선을 호위항공모함(롱아일랜드, Long Island)으로 긴급히 개장하여 전쟁 직전에 취역시켰다.⁵⁰⁾ 이로써 미국은 태평양 전쟁 전 7척의 항공모함과 1척의 호위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일본은 1918년 건함계획에 반영된 호쇼(鳳翔)가 영국의 지원을 통해 1922년 취역함으로써 일본의 항공모함 시대가 시작됐다. 기준 배수량 7,500톤의 호쇼는 약 20여 대의 함재기를 운용할 수 있었다. 일본 최초의 항공모함으로서 상징적 의미가 있었으나 작은 선체로 인한 작전능력의 제한으로 전략적 가치는 높지 않았다. 이후 일본은 건조가 중단된 순양전함 아카기(赤城)와 아마기(天城)를 항공모함으로 개장하던 중, 관동 대지진으로 아마기가 파손되자 이를 대신해 1922년부터 전함 카가(加賀)를 20,000톤 후반의 항모로 개조했다.⁵¹⁾

한편 당시 일본은 미국을 유력한 잠재적 위협으로 인지하여 1930년대 초반 까지도 질적인 접근 대신 미국과 동등한 수의 항모를 보유하는 것에 중점을 두면서 소형 항공모함 건조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1933년 취역한 류조(龍驤)는 8,000톤급 함선으로 설계됐으나, 적정 규모의 함재기를 탑재하기 위해 복층 비행갑판 구조로 변경되어 48대의 함재기를 운용하는 기준 배수량 12,000톤 항모로 건조됐다. 이러한 설계 변경으로 류조의 선체 구조는 상당히 불안했으며 선체 방호를 위한 장갑을 거의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⁵²⁾

위와 같은 류조의 실패 이후 일본은 소형 항공모함 대신 중대형 항공모함 건조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에 1937년에 취역한 소류(蒼龍)는 기준 배수량 15,900톤으로 68대의 함재기를 운용할 수 있었으며, 1939년에 취역한 자매함 히류(飛龍)는 소류의 개량형으로 기준 배수량 17,300톤에 함재기 73대를 탑재할 수 있었다. 소류급의 설계상 특징은 장갑 장착을 최소화하여 방어력을 희생 시킴으로써 속도, 전투반경, 함재기 탑재 공간 확보를 들 수 있으며 소류급은

50) Chesneau(1992), pp.208-213.

51) Scot MacDonald, "Evolution of Aircraft Carriers", 『The office of the chief of Naval Operations Department of the navy』 (1964), p.41.

52) David C.Evans and Mark R.Peattie, *Kaigun: Strategy, Tactics and Technology in the Imperial Japanese Navy 1887-1941*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97), p.301.

향후 일본 항공모함 설계에 전형이 되었다.⁵³⁾ 이후 일본은 쇼카쿠(翔鶴)와 즈이카쿠(瑞鶴)를 1941년 8월과 9월에 각각 취역시켰다. 소류급과 아카기급의 경험을 통해 최적화된 설계에 기반을 둔 쇼카쿠급은 기준 배수량 25,000톤에 84대의 함재기를 전개할 수 있었다.⁵⁴⁾

또한 해군군축체제 하에서 일본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항공모함 전력을 증강시킬 방법을 모색했고 이에 따라 단시간에 항공모함으로 개조시킬 잠수함 지원함, 수상기모함, 여객선 등을 미리 건조하기 시작했다. 1930년대에는 상당수의 함정들이 건조되었고, 1940년부터는 이들의 개장이 시작되었다. 태평양 전쟁 직전 잠수함 지원함이었던 11,000톤급의 즈이호(瑞鳳)와 여객선이었던 17,000톤급 타이요(大鷹)가 개장을 통해 전력화되었고, 15척 정도가 전쟁 발발 후에 취역했다.⁵⁵⁾ 이로써 일본은 태평양 전쟁 전 10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처럼 태평양에서의 전쟁 수행을 위해서 양국은 항공모함을 건조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향후에 해전의 승리를 결정짓는 주요 수단으로써 운용되었다.

라. 군비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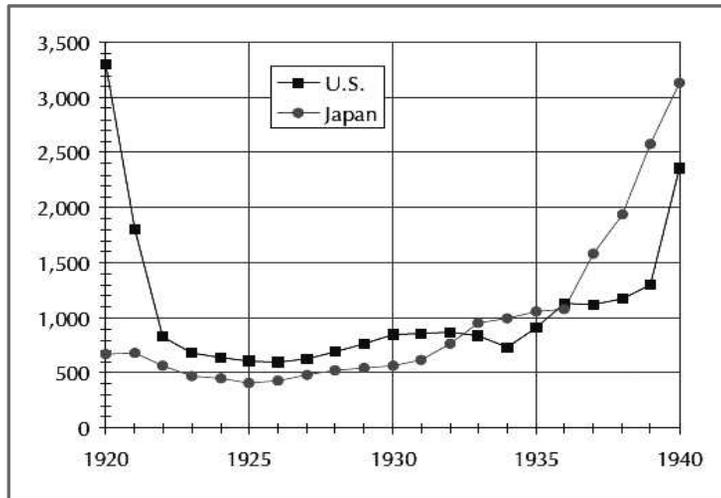
우선 태평양 전쟁 전 미국과 일본의 국방비를 살펴보겠다. <그림 1>을 보면 1935년 이후로 양국 모두 전반적으로 국방비가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을 통해서 1935년부터 양국의 국방비를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1935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였고 일본의 경우 1937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해당년도부터는 미국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미국과 일본의 1935-1940년 사이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을 산출해 보면 미국은 24%, 일본은 22%에 해당한다. 전쟁단계이론에서 군비경쟁의 조건은 최소 3년간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이 8% 이상이었으므로 양국은 군비경쟁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53) Mark R. Peattie, *Sunburst: The Rise of Japanese Naval Air Power, 1909-1941*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2001), pp.238-239

54) MacDonald(1964), pp.42-43.

55) Chesneau(1992), p.173; MacDonald(1964), p.43.

〈그림 1〉 미국, 일본의 국방비 지출현황 비교(단위: 백만달러)



출처 : William D. O'Neil, "Interwar U.S. and Japanese National Product and Defense Expenditure", 『The CNA Corporation』 (2003), p.33.

〈표 3〉 미국, 일본의 국방비 지출현황 및 증가율(단위: 백만달러)

년 도	미 국	증가율(%)	일 본	증가율(%)
1935	913	25	1,055	5
1936	1,127	23	1,078	2
1937	1,122	-0.4	1,582	46
1938	1,177	5	1,943	23
1939	1,300	10	2,580	33
1940	2,355	81	3,128	21
평균증가율(%)	-	24	-	22

출처 : William D. O'Neil(2003), pp.23-31. 참조하여 재구성

특히 이러한 군비경쟁은 〈표 4〉를 보면 양국의 해군력 건설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계기로 1934년 제1차 빈슨-트램멜 법안, 1938년 제2차 빈슨-트램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해군력 건설에 많은 예산을 투여했으며, 매년 해군 예산을 인상했다. 미국은 이 기간 중 해군 군사비 지출이 연평균 20.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워싱턴/런던조약의 제한으로 잠수함과 항공기의 증강에 역점을 두었고 1936년 이후

부터는 주력함이었던 전함 건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기간 중 일본은 해군 군사비 지출이 연평균 13.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4〉 미국, 일본의 해군 군사비 지출현황 및 증가율(단위: 백만달러)

년 도	미 국	증가율(%)	일 본	증가율(%)
1935	436	46.9	536	10.9
1936	528	19.8	567	5.7
1937	556	5.2	645	13.7
1938	596	7.1	679	5.2
1939	672	12.7	804	18.4
1940	891	32.5	1,034	28.6
평균증가율(%)	-	20.7	-	13.8

출처 : George Modelski and William R. Thompson, *Seapower in Global Politics, 1494-1993*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8), pp.338-342.
참조하여 재구성

2. 현재의 미중관계 분석

가. 영토분쟁

현재 미국과 중국간 영토주권에 관한 이견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곳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다. 우선 남중국해에서 분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1974년부터 중국이 점령하고 있는 시사군도(西沙群島, Paracel Islands)를 두고 중국, 대만, 베트남과의 분쟁이고, 두 번째는 황암도(黃巖島, Scarborough Shoal)를 두고 중국, 대만, 필리핀의 분쟁이며 세 번째는 난사군도(南沙群島, Spratly Islands)를 두고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의 분쟁이다.⁵⁶⁾ 남중국해는 군사전략적 측면⁵⁷⁾과 경제적 가치⁵⁸⁾로 인해서 중국 및 인

56) U.S. Department of Defense, "Asia-Pacific Maritime Security Strategy: Achieving U.S. National Security Objectives in a Changing Environment", 『Washington, D.C.』 (2015), p.6.

57) 미국의 아시아재균형 정책을 통해서 중국의 해군력 팽창을 막고자 하고 있으며 중국은 남중국해

접국가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의 확대 선언을 야기함으로써 해당지역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우선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과거 서구 열강으로부터 침탈 당한 굴욕적인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양으로부터 야기되는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에 있어서 “남중국해는 역사적으로 동남부 지역의 외침에 대응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전방 방어를 구축하는 내륙 방어지역 역할을 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이 지역에 대한 통제권의 확보가 중요하다. 지정학(geopolitics)적 관점에서 볼 때 중국에 있어서 남중국해는 인도양과 아프리카의 바닷길로 연결되는 주요해협으로 중국 해군이 대양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통로라는 점에서 그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다.

미국의 입장에서 남중국해는 지정학적으로 미국 7함대가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를 왕래하는 전략적 해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작전의 수행 상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해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야 동남아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더욱이 중국의 부상에 따른 공세적 해양전략은 자신이 주도해 온 이 지역의 해양질서를 위협하게 될 것이며, 현재 중국이 추구하는 팽창주의적 해양전략을 방지할 경우, 태평양과 인도양을 아우르는 해양세력으로 발돋움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관할권을 기반으로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급격히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⁵⁹⁾

남중국해 분쟁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이지만, 동시에 이 해역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미중 사이에도 심각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자신의 앞마당인 남중국해는 핵심이익(core interest)이 걸려 있는 지역으로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오고 있지만, 미국은 항행 자유의 원칙을 이유로 중국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중국과 영유권분쟁을 겪고 있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국가들을 정치·군사적으로 지원

를 내해로 만들어 남중국해에서의 미국과 우방국들의 항행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해양통제권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58) 해상교통로(SLOC: Sea Lanes of Communication)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다. 전 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이 이동하고 있으며,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의 양은 하루 천만 배럴에 달한다. <http://rootasia.org/tag/%ED%99%A9%EC%95%94%EB%8F%84/>(검색일자: 2016년 9월 5일)

59) 박창권, “미국의 지역내 패권경쟁 가능성과 우리의 전략적 선택 방향,” 『전략연구』 제57호 (2013), p.210.

함으로써 남중국해문제는 동아시아 최대의 문제가 되고 있다.⁶⁰⁾

위와 같이 남중국해의 전략적 가치로 인해 현재 남중국해 분쟁은 분쟁 당사국 간의 영토주권 분쟁의 범위를 넘어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들의 역내 패권 경쟁의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 지역 혹은 전 세계적 규모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을 포괄하는 매우 복잡한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위와 같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유권 확대 시도를 미 국방부의 중요한 도전과제로 설정하였고 다양한 국제법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평화적인 해양분쟁 해결 노력을 중국에게 요구함으로써⁶¹⁾ 차후에도 양국간 해당지역에서의 해양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외부동맹

미국과 중국은 각각 미일/한미동맹, 북중동맹을 체결하고 있다. 먼저 미국의 미일동맹을 살펴보면 미일동맹은 1951년 9월 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강화회의에서 양국이 체결한 미일안전보장조약에 기원을 두고 있다. 미국이 일본과 동맹을 맺은 핵심 목적은 소련의 팽창적 공산주의를 견제하기 위함이었으며 미일동맹은 냉전기 동안 소련의 아시아 팽창을 성공적으로 막아 냈다. 1997년 미일신방위협력지침 책정 등 동북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지역 안정자’로서 동맹의 역할과 범위를 확장하였고 2001년 9·11 테러 이후에는 비대칭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세계적 전략에 적극 호응하였다. 2000년대 후반 들어 공고하게 유지되어 왔던 미일동맹은 2009년 들어선 일본의 민주당 정권의 등장으로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 이전문제에 의한 갈등으로 잠시 균열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과 정상국가로 탈바꿈하려는 일본의 전략적 이익이 수렴하면서 미국은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⁶²⁾ 이러한 변화가 집약된 것은 2015년 4월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으로 아베 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수용하여 집단적 자위권과 자위대 후방 지원에 대한 제약 완화 등의 사안에서 일본의 보다 강력한 역할을 인정하였다. 미

60) 변창구, “미·중 패권경쟁과 남중국해 분쟁: 실태와 전망”, 『한국동북아논총』 제79호(2016), p.28.

61) U.S. Department of Defense(2015), p.6, 30.

62) 김기주, 황병선, “센카쿠(다오위다오) 열도 영토분쟁을 둘러싼 일중간 전쟁 발발 가능성 전망”, 『국제정치논총』 제53집 2호(2013), p.51.

국은 일본이 지역 안보와 안정에 더욱 많은 기여를 할 것을 기대하며 특히 의회가 승인하는 경우에 일본 자위대가 지구 어디에서든 작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때문에 기존까지는 일본 열도에 국한되었던 자위대의 작전 범위는 획기적으로 확대되었다. 미일의 안보협력은 결국 중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존 케리(John Kerry) 국무장관은 “해양의 자유를 수호”하는 데 일본의 역할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남중국해 문제와 일본과의 안보협력의 잠재력을 강조하였다.⁶³⁾

다음으로 한미동맹은 1953년 10월 1일 서명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원을 두고 있다. 한미동맹은 과거부터 한반도에 유효한 안전보장능력을 제공해 왔고 한국의 안보 비용을 절감시켜줌으로써 한국의 경제가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전후 한미관계는 군사적, 경제적으로 미국에 크게 의존하였다. 사실 전쟁 기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의 다양한 군사 및 경제 원조를 받아 왔었고 이를 통해서 한국의 전후 복구와 경제 재건은 가능했다. 이후에 미국으로부터 원조만 받아왔던 한국은 1964년에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 미국을 지원함으로써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1966년 7월에는 주한미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의 주둔에 따른 갈등 요인을 해소하고자 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주한미군 철군정책이 추진되면서, 한미관계에 갈등이 있었지만 1978년 11월에는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실질적인 연합방위체제로 발전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미국이 주도하는 대테러 국제연대에 동참하여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파병하기도 하였다. 한때 참여정부 시절에 제기된 한미동맹의 제한된 유효성에 대한 논쟁도 있었으나 한미동맹은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해 왔으며 현재는 최상의 안보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전제는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 되며 이를 위해 한미동맹은 가장 중요한 안보 자원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2013년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였다.⁶⁴⁾

위와 같이 미일/한미동맹이 강화되고 있는 요인은 미국이 아시아재균형 정책⁶⁵⁾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현상유지를 목표로 아

63)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5 동아시아전략평가』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5), p. 65.

64) 국방부, 『한미동맹 60년사』 (국군인쇄창, 2003), pp.16-18; 박병철, “정권교체기 미중관계와 한미동맹”, 『통일전략』 제15권 제2호(2015), pp.116-119.

65) 미국의 아시아재균형 정책은 2011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호주 의회 연설을 참조할 것.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Remarks by President Barack Obama to the

시아재균형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즉 미국이 만들었던 원칙들을 유지함으로써 기존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시아 지역의 기존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고 특히 일본, 한국 등 기존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일본과의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해 일본의 안보역할을 강화했으며 주한미군과 한국군 역량 현대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적극적인 아시아재균형 정책으로 인해 미일/한미동맹의 중요성은 강화되고 있고 향후에도 해당동맹이 약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북중동맹은 1949년 3월 17일 체결된 조중 상호방위협정에 기인한다. 이 협정을 토대로 중국은 6·25 전쟁에 개입하였고 전쟁 이후에도 북한과의 군사협력의 틀로써 활용하였다. 북한은 중소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1961년 7월 6일 소련과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을, 5일 뒤인 1961년 7월 11일에 중국과 조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을 각각 체결했다. 이는 북한과의 동맹 형성을 통한 자국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려던 소련과 중국의 입장을 잘 활용한 북한의 외교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북한과 중국 모두 흐루시초프의 개인숭배 비판 노선으로부터 김일성, 마오쩌둥 체제를 안정시키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외 반공포위망에 대한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북중동맹은 1970년대 초 시작된 미중간 데탕트를 전후하여 약화되기 시작하다가 냉전이 종식되고 안보환경이 변화하면서 동맹의 결속력은 더욱 느슨해졌고 동맹으로서의 역할도 축소되었다. 특히, 1992년 중국이 냉전 시 우선시 했던 안보이익보다 경제적 실익을 위하여 한국과 수교를 체결하자 북중동맹의 공고성은 더욱 약화되었고 북한 핵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중국이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감싸지 않고 북한 제재를 위한 유엔결의안에 서명한 점은 북중동맹이 명목상으로만 남아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북한과 중국 간 불협화음들이 북중동맹의 와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국은 북중동맹을 통한 대미 견제와 유사시 한반도에의 개입 정당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북중동맹을 통해 북한을 제도적으로 관리, 통제하고자 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북중동맹에 기반한 체제안정과 대미, 대한민국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결국, 북중동맹이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 양국의 지정학적 이익이

Austrrian Parliament, "November 17, 2011.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1/11/17/remarks-president-obama-australian-parliament>(검색일자: 2016년 9월 19일)

변화한 것일 뿐이며 따라서 북중동맹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⁶⁶⁾ 또한 북한의 현재 경제적 상황, 군사적 능력을 고려시 미일/한미동맹에 비해 북중동맹의 견고성과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지만 북중동맹은 자동개입조항⁶⁷⁾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언제든지 중국이 요청한다면 군사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 경쟁관계

1990년대부터 ‘중국 위협론’이 대두되면서, 향후에 중국의 세계 패권 추구로 미국과 큰 갈등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은 서로 상대방이 추구하는 전략목표를 저지하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남중국해 관련해서 미중간 분쟁 사례와 해군력 현대화 및 전진배치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본격적으로 갈등이 시작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남중국해에서 미중간 직간접적 군사적 대치를 통한 주요 분쟁은 6차례 이루어져 왔다. 먼저 2009년 당시 중국 근해에서 정보 수집을 하던 미국 함정과 중국 선박이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남중국해 하이난(海南)성 부근 공해상에서 중국 해군 함정 등 선박 5척이 미국의 정보수집함인 임페커블(Impeccable)함의 항해를 방해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의 행위는 대단히 이성적이지 못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난했고 이에 대해 중국의 대변인은 “미국 선박은 중국의 EEZ 내에서 중국의 핵잠수함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며 “이는 국제법과 중국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⁶⁸⁾ 이후에 미국은 이지스함인 충훈(Chung hoon)함을 파견하여 임페커블함의 호위 임무를 수행하였다.⁶⁹⁾

2013년 12월 5일에는 미국과 중국 군함이 5일 남중국해에서 충돌 직전 상황에까지 이르렀었다. 당시 두 나라가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 문

66) 김기주, 황병선(2013), pp.53-54.

67)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맡으면서 체결국에 대한 특정 국가의 침략을 방지한다. 체결국 가운데 한 쪽이 몇몇 동맹국의 침략을 받을 경우 전쟁 상태로 바뀌는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자동군사개입’의 의미는 군사원조국이 자국의 헌법 절차 즉, 국회동의나 내각결정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없이 즉각 지원한다’는 의미이다. 강정일, “북중동맹의 공고성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 제54호(2012), p.134.

68) “미·중 함정 남중국해 대치 긴장 고조”, 『중앙일보』, 2009년 3월 12일.

69) “美 남중국해에 구축함 파견, 관측선 호위”, 『연합뉴스』, 2009년 3월 13일.

제로 대립각을 세우던 시점으로 상황은 더욱 심각하게 인식되었다. 남중국해에서 작전 중이던 미국 순양함인 카우펜스(Cowpens)함에 중국의 상륙함이 접근해왔고 카우펜스함은 이에 무선으로 정지하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중국 군함은 이를 무시한 채 측면에서 카우펜스함 앞을 가로지르는 항로를 잡아서 두 군함은 한때 180m까지 근접하였다. 결국 카우펜스함이 항로를 전환하고 물러서면서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미국 국무부는 이후 고위급 수준에서 중국에 공해상 위협 행위를 항의했으나 중국은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당시 카우펜스함이 당시 중국 항공모함 라오닝함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서 중국이 이에 대한 불만으로 충돌 작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 라오닝함 전단은 당시 남중국해에서 첫 항모 훈련을 하고 있었고 카우펜스함을 향해 돌진하던 중국 상륙함도 라오닝함 전단 소속으로 알려졌다.⁷⁰⁾

이후 2015년 10월 27일에 미국은 이지스함인 라센(Lassen)함을 보내서 중국이 난사군도(南沙群島, Spratly Islands)에 건설한 수비환초(중국명: 渚碧礁)로부터 12해리 이내를 무해통항(innocent passage)함으로써 이 섬이 중국의 영해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미국의 행위를 도발로 규정하며 필요한 주권 수호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으며, 외교부장도 미국을 향해 “경거망동함으로써 공연히 말썽거리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⁷¹⁾고 경고했다.

또한 동년 11월 5일에 카터(Ash Carter) 미 국방장관은 남중국해를 순항 중이던 항공모함 루스벨트(Roosevelt)함에 올라 전투기 이착륙을 지켜보면서 항행의 자유 수호의지를 거듭 과시하였는데, 이에 대해 중국의 국방부장은 “미국이 잘못된 언행을 중단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위험한 행동도 하지 말 것을 촉구”⁷²⁾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었다.

2016년 들어서 1월 30일에 미국의 이지스함인 커티스윌버(Curtis Wilbur)함이 시사군도(西沙群島, Paracel Islands)의 중젠다오(중국명: 中建島)로부터 12해리 이내를 항해했다. 커티스윌버함은 중국, 대만, 필리핀 등 영유권 주장 국가에 사전 통보 없이 진입해 3시간 가량 항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 작전은 항행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려는 중국 대만 베트남 등 세 국가의 시도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어느 나라 섬이

70) “미국-중국 군함 남중국해서 180m까지 근접했다”, 『한국일보』, 2013년 12월 15일.

71) “美해군, 남중국해 中인공섬 근해 진입작전 개시, 긴장 최고조”, 『연합뉴스』, 2015년 10월 27일.

72) “미중 해군 서로 상대 영해 접근, 뜨거운 기싸움”, 『한국일보』, 2015년 11월 6일.

든 국제해양법상 보장된 무해통항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중국은 미 군함이 허락도 없이 진입했다는 점에서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미국의 그 어떤 도발 행위에도 중국 군대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또한 “미국 해군 구축함인 커티스윌버함이 중국 법률을 위반해 멋대로 우리 시사군도의 영해에 진입했다”며 “섬의 방위 부대와 해군 군함, 군용기가 즉각 대응 행동에 나서 식별 조사와 경고, 구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에 대해 2016년에는 분기당 한 차례 남중국해의 인공섬 주변 해역에서 ‘자유 항행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⁷³⁾

이어서 5월 10일에는 미국의 이지스함인 윌리엄 P.로런스(William Porter Lawrence)함이 난사군도의 피어리 크로스 암초(중국어명: 永暑礁)로부터 12해리 이내를 항해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고 중국은 전투기(J-11) 2대와 순찰기(Y-8) 1대, 구축함 1척과 호위함 2척이 미국의 윌리엄 P.로런스함에 경고를 보낸 뒤 퇴각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윌리엄 P.로런스함이 중국 정부의 사전 허가도 받지 않고 중국 영해에 불법 진입했다”며 “유관 당국이 윌리엄 P.로런스함을 추적하며 경고를 보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이런 행위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이익, 도서 내의 인력과 시설안전에 대한 위협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한 반대를 거듭 표명한다”고 강조했다.⁷⁴⁾

위와 같이 2009년 이후 남중국해 인근 해역에서 미중간 군사적 분쟁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무력시위를 포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위와 같은 남중국해에서의 미중간 분쟁 사례와 관련된 양국의 해군력 현대화 및 전진배치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먼저 미국의 경우 2015년 8월에 발표된 아시아태평양 해양안보전략(Aisa-Pacific Maritime Security Strategy, 이하 ‘아태 해양전략’이라 한다)에서 미국은 신속한 대응능력의 강화를 위해 아태 해역에 전방 전개전력을 더욱 증대시킬 것을 명시하고 있다. 미 해군은 향후 5년간 미 영토가 아닌 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함정 규모를 30% 증대하여 전방 전개능력을 유지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예로 상륙강습함인 아메리카함

73) “美군함 분쟁해역 또 진입, 中 군사대응 경고”, 『동아일보』, 2016년 2월 1일.

74) “美 군함, 남중국해서 또 ‘항해의 자유’ 작전 실행, 中 전투기 긴급 발진 강력 반발”, 『조선일보』, 2016년 5월 11일.

(USS America)을 2020년까지 태평양 지역에 전개시키고 이지스함 2척을 추가로 일본에, 최신예 스텔스 구축함(DDG-1000) 3척⁷⁵⁾을 태평양 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향후 2017년까지 연안전투함(Littoral Combat Ship) 4척을 싱가포르에 전개시키고 2척 이상은 상시 해상에서 작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해역에서 미 해군력의 현시를 실제적으로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일본의 오키나와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전력을 호주, 괌 및 일본 본토에 분산 배치하여 위기 대응능력의 향상을 꾀하고 있다. 특히 괌을 태평양의 전략기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잠수함을 추가 배치하고 해병 전력을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합동고속수송선을 2018년까지 배치할 예정이다.⁷⁶⁾

중국의 경우 적극적 근해 방어전략⁷⁷⁾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중국은 1985년 까지는 해상에서의 인민전쟁 수행 개념을 바탕으로 한 연안방어 전략을 추구했다면 1985년 이후에는 거리 측면에서 연안에서 근해로 확장되고 적극성 측면에서 소극적 방어에서 공세적 방어로 전환된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⁷⁸⁾ 이는 미국이 과거부터 항공모함과 이에 탑재된 항공기를 활용하여 전 세계에 군사력을 현시하고 원하는 지역에 군사력을 투사하는 전략에 대항하는 개념으로 중국으로 접근하는 미국 군사력의 접근을 차단하고 지연시키며 최대한 원거리에서 작전을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해당 전략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국은 해군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잠수함과 항공모함이다.

중국은 전략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핵잠수함으로 진(晋)급 잠수함을 총 4척, 재래식 공격용 잠수함을 약 60척 보유하고 있다. 특히 사거리 약 8,000km의 JL-2(巨浪-2)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진(晋)급 잠수함은 미 본토를 사격 목표로

75) 최초에는 동급의 구축함 32척을 건조해 취역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고가의 건조비용 등으로 3척을 보유할 계획이다. 1번 함인 Zumwalt(USS Zumwalt)함은 2016년 10월에 취역하여 2017년말까지 장착한 무기 성능 실험 등을 한 후 2018년 태평양함대에 최종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美 차세대 스텔스구축함 Zumwalt 내달 15일 취역, 태평양 배치”, 『연합뉴스』, 2016년 9월 8일.

76) U.S. Department of Defense(2015), pp.20-23.

77) 위협이 본토에 도달전 근해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무력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해군은 강택민 집권기(1990-2004)와 호금도 집권기(2005-현재)중에 근해방어전략에서 ‘적극적 근해방어전략’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해는 12해리(영해) 내의 근거리 연안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국은 근해를 탄력적으로 200해리(배타적 경제수역)에서 1,000해리까지 그 의미를 확대 해석하여 왔다. 김정현, “한국해군이 지향해야 할 해양전략”, 『전투발전연구』 제16호(2009), p.27.

78) 중국의 적극적 근해방어전략을 미국의 관점에서는 반접근/지역거부(Anti-Access/Area Denial)이라고 부르고 있다. 임경한 외, 『21세기 동북아 해양전략』 (서울: 북코리아, 2015), p.171.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⁷⁹⁾ 중국은 지난 2014년부터 해당 잠수함을 하이난(海南)성 산야(三亞)기지에 배치했다. 또한 5번째 진급 핵잠수함을 건조 중이며 이보다 성능이 뛰어난 3세대 096형 탕(唐)급 핵 잠수함을 개발 중이다.⁸⁰⁾

나아가 중국은 항모전단을 갖출 계획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2011년 8월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을 건조하여 시험항해를 거쳐 2012년 9월 실전 배치하였다. 또한 현재 자국의 설계와 기술로 항공모함을 추가로 자체 건조하고 있는데 실전 배치까지는 앞으로 2-3년 더 소요될 전망이다. 향후 배치 장소는 대륙 최남단 하이난(海南)성 산야(三亞)기지이며 활동 장소는 남중국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⁸¹⁾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들간에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⁸²⁾ 위와 같은 아태해역에서 양국의 해군력 현대화 및 전진배치는 해당해역에서 미중간 대립에 의한 군사적 갈등을 언제든지 고조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라. 군비경쟁

2009년부터 2015년 사이에 미국과 중국의 국방비 지출을 살펴보겠다. <표 5>를 보면 미국은 2011년부터 국방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미국 국방부가 국가재정위기 타개를 위해 2012-2013 회계연도부터 예산통제

79) 진(晋)급 잠수함은 JL-2 SLBM 12발을 장착할 수 있다. 현재 JL-2는 사정거리가 약 8,000km로 예상되며, 사정거리가 기존 JL-1 SLBM의 사정거리 2,700km에 비해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JL-2는 복수목표 개별유도 재진입체(Multiple Independently Targeted Re-entry Vehicle: MIRV)탄두 또는 하나의 단일 탄두이며, 향후 위성이나 GPS항법을 이용하여 CEP를 150~300미터로 줄이게 되면 매우 위력적인 전략무기가 될 것이다. 김덕기, “중국의 잠수함 전력 증강과 전략적 함의”, 『해양전략』 제159호(2013), pp.13-15.

80) “미중, 남중국해 수중서도 치열한 잠수함전, 중, 핵잠 배치”, 『연합뉴스』, 2016년 7월 11일.

81) 현재 건조 중인 중국의 항모는 영국의 중형 항모인 퀴 엘리자베스함과 동급의 전력으로 항모 길이는 300m 전후, 최대 배수량 6만5000t급 안팎, 속력은 25노트(시속 46km)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랴오닝함은 훈련 및 연구용으로 활용하고 실전용으로는 현재 다롄에서 자국 기술로 건조 중인 신 항모가 실질적인 1번 항모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중국은 상하이에서 제3의 항모를 건조 중에 있다. “첫 중국산 항모는 퀴엘리자베스급, 3년내 남중국해 배치”, 『중앙일보』, 2016년 8월 29일.

82) 중국은 2002년 남중국해 영유권분쟁의 당사국들과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DOC: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⁵¹⁾에 합의함으로써 관계개선에 착수하였다. 이어서 중국은 그 구체적 행동을 규정하는 후속 조치로서 ‘남중국해에 있어서의 행동규범(COC: Code of Conduct in the South China Sea)’을 마련하기 위하여 ASEAN과 협의하여 왔으며, 2011년 7월에는 ‘남중국해 평화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합의함으로써 COC를 한 단계 진전시켰다. 변창구(2016), p.40.

법(BCA: Budget Control Act)⁸³⁾에 의한 대규모 예산 삭감의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이와는 달리 중국은 국방비가 미국의 약 35%정도 밖에 안되지만 2009년 이후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미국, 중국의 국방비 지출현황(단위: 백만달러)

구 분	미 국	중 국
2009	737,747	137,401
2010	757,992	144,383
2011	748,646	155,898
2012	706,082	169,321
2013	650,081	182,930
2014	609,914	199,651
2015	595,472	214,485

출처 :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 base, “Data for all countries from 1988-2015 in constant USD” <https://www.sipri.org/sites/default/files/Milex-constant-USD.pdf>. 참조하여 재구성(검색일자 : 2016년 9월 8일)

위와 같이 미국의 국방비 감소로 인해 양국간의 군비경쟁은 보이지 않지만 향후 남중국해 분쟁에 개입하여 앞에서 제시된 양국의 공세적인 해양전략을 수행하게 될 양국의 해군 함정 건조 계획은 눈여겨 봐야 할 요소라고 판단된다.

먼저 미국은 현재 수상함 91척, 상륙함 30척, 잠수함 81척 등 약 272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으나 2021년에는 약 308척의 함정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⁸⁴⁾ 세부적으로 증가 척수는 〈표 6〉과 같이 핵 추진 항공모함 1척, 핵 추진

83) 최근 미국은 국가재정위기 타개의 일환으로 발효된 예산통제법(BCA)과 자동예산삭감(sequester)의 영향으로 어느 때보다도 국방비 획득이 어려운 실정이며, 국방비 지출 감소를 위한 예산운영의 효율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2011년 8월 2일 미국 의회는 연방정부의 채무한도를 증액하고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 of 2011)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차적으로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을 2012년부터 10년 동안 9,170억 달러 삭감하는 것이 확정되었으며, 2012-2013회계연도 이후 국방비는 대규모 감소되었다. 또한 시퀘스터(Sequester)란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을 자동으로 삭감하는 조치’로서 예산통제법에 의해 발효되었다. 2013년부터 10년간 국방관련 및 비국방 관련 예산에서 각각 절반씩 삭감하여 총 1조 2,000억 달러가 자동적으로 삭감될 예정이었지만 「초당적예산법」(Bipartisan Budget Act of 2013)에 의거 2016-2017회계연도로 연기되었다. 김종태, 장지홍, “미국 국방예산운영 효율화정책 동향과 시사점- 전략관리계획서(SMP)를 중심으로”, 『주간국방논단』 제1575호(2015년), p.2, 10.

84) Ronald O'Rourke, “Navy Force Structure and Shipbuilding Plans: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6), pp.5-6; “Here's the Navy's \$81 Billion, Five-year Shipbuilding Plan”, 『DoD Buzz』, 2016년 4월 7일.

잠수함 9척, 이지스함 10척, 연안전투함 7척 등이다. 미국의 국방비는 감축되는 추세이나 해군 함정의 척수 및 현대화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미국의 함정 건조 계획

Ship type	FY17	FY18	FY19	FY20	FY21	Total
Ohio replacement (SSBNX) ballistic missile submarine					1	1
Ford (CVN-78) class aircraft carrier		1				1
Virginia (SSN-774) class attack submarine	2	2	2	2	1	9
Arleigh Burke (DDG-51) class destroyer	2	2	2	2	2	10
Littoral Combat Ship (LCS)/Frigate	2	1	1	1	2	7
LHA(R) amphibious assault ship	1					1
LX(R) amphibious ship				1		1
Fleet towing salvage, and rescue ship (TATS)		1	1	1	1	4
TAO-205 (previously TAO[X]) oiler		1	1	1	1	4
TOTAL	7	8	7	8	8	38

출처 : Ronald O'Rourke(2016), pp.7-8.

다음으로 현재 중국은 〈표 7〉과 같이 26척의 구축함(21척, 팔호 안의 숫자는 현대화 척수임), 52척의 호위함(35척), 20척의 신형 초계함, 56척의 상륙함, 42척의 기뢰함(30척), 66척의 잠수함 등 약 300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으나 2020년 경에는 약 342척의 함정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⁸⁵⁾ 세부적으로 증가 척수는 항공모함 1척, 핵 추진 잠수함 5척, 구축함 8척, 호위함 6척, 초계함 10척 등이다. 이에 더하여 표 7의 하단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2020년경에는 중국 대부분의 함정이 현대화될 전망이다. [현대화 비율: 디젤잠수함(75%), 핵잠수함(100%), 구축함(85%), 호위함(85%)] 중국은 국방비 증가 추세와 함께 해군 함정의 척수 및 현대화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85) U.S.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The PLA Navy: New Capabilities and Missions for the 21th Century", 『Washington, D.C.』 (2015), pp.13-15.

〈표 7〉 중국의 함정 건조 계획

Ship type	2000	2005	2010	2015	2020
Number					
Diesel attack submarines (SSs)	60	51	54	57 to 62	59 to 64
Nuclear-powered attack submarines (SSNs)	5	6	6	6 to 8	6 to 9
Ballistic missile submarines	1	2	3	3 to 5	4 to 5
Aircraft carriers	0	0	0	1	1 to 2
Destroyers	21	21	25	28 to 32	30 to 34
Frigates	37	43	49	52 to 56	54 to 58
Corvettes	0	0	0	20 to 25	24 to 30
Amphibious ships	60	43	55	53 to 55	50 to 55
Missile-armed coastal patrol craft	100	51	85	85	85
Approximate percent of modern design					
Diesel attack submarines	7	40	50	70	75
Nuclear-powered attack submarines	0	33	33	70	100
Destroyers	20	40	50	70	85
Frigates	25	35	45	70	85

출처 : Ronald O'Rourke,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6), p.50.

3. 미중간 전쟁 발발 가능성 전망

가. 미일/미중관계 비교 결과

위와 같이 태평양 전쟁 전 미일관계와 현재의 미중관계를 살펴보았다. 비교 결과 유사한 점도 있으나 차이점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영토분쟁에 있어서 두 시기 모두 양국간 영토의 주권행사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었다. 외부동맹의 경우도 두 시기 모두 자국 이외의 국가들과 동맹 혹은 이와 유사한 관계를 통해서 세력균형을 취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경쟁관계에 있어서도 최소 6회 이상의 분쟁을 보여주었다. 다만 군비경쟁 측면에서 미일관계의 경우 뚜렷한 군비경쟁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미중관계의 경우 중국의 지속적인 국방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국방비 감소 추세에 따라 군비경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었다. 하지만 양국이 남중국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해군의 경우 향후에 그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결과를 전쟁단계이론에 적용해 보면 태평양 전쟁 전 미일관계는 <표 8>에서와 같이 전쟁단계이론의 4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시키고 있었으므로 4단계(전쟁 발발 가능성: 90%)에 해당하고 현재의 미중관계는 군비경쟁의 요소가 충족되지 않고 그 외의 요소가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3단계(전쟁 발발 가능성: 55%)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표 8> 전쟁단계이론 적용을 통한 전쟁 발발 가능성 분석

구 분	영토분쟁	외부동맹	경쟁관계	군비경쟁	전쟁 발발 가능성 (5년 이내)	위험단계
태평양 전쟁 전 미일관계	○	○	○	○	90%	4
현재의 미중관계	○	○	○	×	55%	3

하지만 미중간 전쟁 발발 가능성을 55%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현재의 미중관계에는 태평양 전쟁 전 미일관계와는 다른 부분, 즉 전쟁 발발을 제한하는 요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미중간 전쟁 발발을 제한하는 4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이를 고려한 미중간 전쟁 발발 가능성을 살펴 보겠다.

나. 제한요소를 고려한 미중간 전쟁 발발 가능성 전망

제한요소로 먼저 지도자들의 인식이다. 왈츠(Waltz)는 인간의 본성에 내재한 공격적 충동, 어리석음, 선입견 등으로 인한 지도자들의 잘못된 인식이 국가들이 전쟁을 하는 첫 번째 요인이라고 제기한 바 있다. 여기서 지도자들은 전쟁 수행을 결정하는 정치지도자, 군부지도자들의 존재를 의미한다.⁸⁶⁾

실제로 1930년대 당시 일본이 전개한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의 개전 과정에서 일본의 육군성, 해군성의 중견 막료들이 영미 협조체제로부터의 이탈과 미국, 영국, 소련을 상대로 전쟁 결정을 주도해 나갔다. 이들은 공통

86) Kenneth N. Waltz, *Man, the States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1), pp.28-30.

적으로 초급 장교 시절에 제1차 세계대전을 목도하면서 장차 전쟁은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는 총력전 양상이 될 수밖에 없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본의 총동원체제가 구축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전략 구상을 공유하고 있었다. 또한 명치헌법상 군부가 천황과 직결되는 통수권의 통치 구조로 인해 군부를 제어할 정부의 견제 장치가 없었다는 점⁸⁷⁾, 외교 및 군사정책 결정 과정의 최고책임자인 명치천황과 소화천황이 육/해군 중견층의 전쟁 결의를 적극적으로 제어하지 않았던 점이 더해져서 군부 중견층의 호전론이 실제의 개전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⁸⁸⁾

위와 같은 일본의 침략 의도를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일전쟁 당시 루즈벨트 행정부는 일본에 제재를 가하여 사전에 일본의 침략 정책을 억제하지 않고 중국 원조 확대, 일본에 대한 경제적 압력 정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오히려 일본으로 하여금 국가 생존을 위해서 전쟁 이외의 다른 대안 선택이 불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미일교섭 과정에서 일본이 획득한 중국, 만주, 동남아시아의 포기를 요구하며 만주 이남으로 일본군 전면 철수를 주장한 미국의 헐 노트(Hull Note)는 일본에 대한 최후통첩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 일본의 개전 결심에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당시 미국 지도자들의 일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대아시아정책의 실패를 초래하였고 이는 태평양 전쟁 발발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⁸⁹⁾

위와 같이 태평양 전쟁 발발에 영향을 주었던 과거 지도자들의 잘못된 인식과는 달리 현재 미국과 중국 지도자들의 상호 인식은 양국의 경쟁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공동 이익에 기초해 기본적으로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⁹⁰⁾ 2010년 이후의 미국과 중국은 우호적인 양국관계가 상호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갈등 요소들을 잘 통제된 상황에서 끌고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미중간 협력적 관계는 2013년 오바마

87) 당시 일본의 육/해군을 지휘한 것은 내각총리대신 같은 민간 정치지도자가 아닌 일본 천황이었다. 통수권은 군대의 지휘 및 통솔, 즉 군령의 영역을 담당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통수권 독립은 일본 군부에게 정부보다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제공하였다. 통수권 독립은 1889년 공포된 명치헌법에 의해서 보장받았으며 해당헌법 제11조는 육/해군의 통수권이 천황에게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일본 정부는 군의 작전 등 군령 분야에 개입할 수 없게 되었다. 반면에 군은 천황의 재가만 받으면 정부의 동의없이 군대를 자유로이 운용할 수 있었다. 황병선, “민군관계와 군사전략의 공세성”, 『한국군사학논집』 제70권 제2호(2014년), pp.39-40.

88) 박영준, “인간, 국가, 국가체제 그리고 일본의 전쟁”, 『국제정치논총』 제45권 제4호(2005년), pp.264-265.

89) 장은상, “태평양전쟁의 원인”,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년, p.3.

90) 최우선, “미중관계와 한국의 전략”, 『주요 국제문제 분석』 No.2015-50(2016), p.2.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간의 미중정상회담을 계기로 더욱 공고해진 것으로 보인다. 2013년 6월에 열린 미중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양국관계를 ‘신형대국관계’로 새롭게 정의하고 과거의 갈등적인 대국관계가 아닌 전 지구적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협력적인 대국관계를 지향할 것에 합의했다.⁹¹⁾ 물론 최근 양국간의 안보 경쟁이 심화되는 측면이 있으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중관계는 협력적인 기초를 유지하는 가운데 경쟁적 성격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⁹²⁾

두 번째 제한요소로 미중간 경제적 상호의존관계이다. 국가간의 교류는 상호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타국에 대한 오해의 가능성을 줄여준다. 한 영역에서 국가들 사이의 협력은 다른 영역으로 협력의 범위를 확산시키고 일단 통합에 들어올 경우 이탈 비용을 증가시켜 통합의 과정은 쉽게 중단되지 않는다. 미중간 경제교류는 상호투자의 증가를 유발하여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강화되므로 이러한 이해관계가 분쟁의 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⁹³⁾ 이는 양국이 갈등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게 되고 미중관계는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상호 수출입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지난 10년간 미국 자본의 중국 직접 투자 규모는 약 3.5배 증가하였고, 중국 자본의 미국 직접 투자 규모는 약 20배 증가하였다. 이는 현재 중국에게 미국은 최대 무역 시장이고 미국은 경제회복을 위해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⁹⁴⁾

세 번째 제한요소로 핵무기 보유이다. 과거에는 무기의 50%는 전쟁 억제력을 위한 것이고 50%는 실제 전투를 위한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핵무기의 파괴적 가능성은 이를 95%의 전쟁 억제 기능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핵무기는 군대의 무기라기보다는 일차적으로 정치적 무기가 되었다.⁹⁵⁾

현재 미국은 7,000개 이상, 중국은 26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⁹⁶⁾ 미국에 비해 열세인 핵 분야에서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은 대륙간 탄도탄과 핵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의 개발에

91) 김동수, “미중관계와 신동북아 질서”, 『CHINA 연구』 제18집(2015), pp.68-69.

92) 최우선(2016), p.7.

93) James L. Richardson, “Asia-Pacific: The Case for Geopolitical Optimism”, 『The National Interest』 38 (1994/95), pp.28-39.

94) 김원모(2016), p.164.

95) Jerram Barrs, *Who are the peacemaker?: The Christian Case for Nuclear Deterrence* (New York: Permission of Intersarsity Press, 1983), p.43.

96) SIPRI, *SIPRI YEAR BOOK 2015*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p.460.

노력하고 있다.⁹⁷⁾ 또한 양국의 핵무기 사용 의도를 살펴보면 미국은 필요시 핵 사용의 위협을 통해서 중국과의 전쟁을 억제하고자 하며 중국 역시 미국이 핵을 먼저 사용할 경우에만 핵을 사용하며 미국의 핵공격에 보복할 수 있을 정도의 핵 능력만을 보유하고자 한다.⁹⁸⁾

따라서 핵무기의 존재가 냉전 기간 동안 미소간의 전쟁을 억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처럼 미중간 핵무기 보유 및 사용에 관한 상호간의 의도만 잘 전달된다면 상대방의 전쟁 수행 의지에 영향을 줄 것은 분명하다.

네 번째 제한요소로 미중간 전쟁 발생시 상호간에 입게 될 피해 규모이다. 최근 미국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는 <표 9>와 같이 2016년 8월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쟁과 관련된 연구보고서(War with China: Thinking Through the Unthinkable)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 보고서에서 2015-2025년 사이에 양국간 전쟁이 발생하면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능력이 향상되면서 미국은 더 이상 전쟁을 자신들의 계획대로 진행해서 결정적인 승리로 이끌 것을 확신할 수 없고 결국에 양국은 상대방에게 심각한 피해를 계속 가하게 되며 어느 쪽도 패배를 수용할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⁹⁹⁾ 또한 양국이 1년간 격렬한 전쟁 후 지불하게 될 경제비용으로 교역량 감소 [미국: 양자무역(90%), 중국: 양자무역(90%), 역내무역(80%), 전체무역(50%)], 소비 감소(미국/중국: 4%), 해외 직접투자의 감소(미국: 90억 달러, 중국: 5억 달러), 국내 총생산 감소(미국: 5-10%, 중국: 25-35%)를 제시했다. 즉 양국간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고 서로에게 큰 피해를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97) US Department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ffice of Secretary of Defense』 (2013), p.6.

98) Gregory Kulacki, "The Risk of Nuclear War with China: A Troubling Lack of Urgency",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2016), p.7.

99) David C. Gompert, "War with China: Thinking Through the Unthinkable", 『RAND CORPORATION』 (2016), p.67. 미중 전쟁은 동아시아의 서태평양에서 진행되며 핵무기를 사용하기보다는 재래식 전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군사기술의 발달로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능력이 향상되어 2025년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의 피해는 중국보다 적으나 2015년에 비해서는 훨씬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표 9〉 미중간 전쟁(1년간 격렬한 전쟁) 후 발생할 경제비용

Estimated Economic Costs After One Year of Severe War		
Category	U.S.Costs	Chinese Costs
Trade	90 percent decline in bilateral trade	90 percent decline in bilateral trade 80 percent decline in regional trade 50 percent decline in global trade
Consumption	4 percent decline	4 percent decline
Income from foreign direct Investment(asset loss excluded)	\$9 billion loss	\$500 million loss
Effects on GDP	Could decline by 5-10 percent	Could decline by 25-35 percent

출처 : David C. Gompert(2016), p.48.

이상과 같이 지도자들의 인식, 미중간 경제적 상호의존관계, 핵무기 보유, 전쟁 발생시 입게 될 피해 규모에 관한 사항은 양국간 전쟁 발발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된다. 비록 앞의 전쟁단계이론에 적용한 미중관계는 3단계(전쟁 발발 가능성: 55%)에 해당되지만 위와 같은 요소를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양국간에 사전 계획된 전쟁 발발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양국간 전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현재 양국이 연루된 영토분쟁, 외부동맹, 관련 해역에서의 해군력 현대화 및 전진배치, 향후 해군 함정 증강 계획 등을 고려시에는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갈등과 관련된 우발적인 사건에 대한 미숙한 위기 대응은 양국간 적대행위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IV. 결론

과거 태평양 전쟁 전 미일관계와 현재의 미중관계를 전쟁단계이론에 적용하여 비교해 보았다. 영토분쟁, 외부동맹, 경쟁관계 측면에서는 양국간 공통점을 보였지만 군비경쟁 측면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즉, 태평양 전쟁 발발 약 5년 전부터 미일 양국은 국방비 및 해군 군사비를 급속하게 증가시

키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반면 현재 미국은 예산통제법의 영향으로 국방비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비록 중국이 매년 꾸준히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미중관계에서는 군비경쟁의 양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남중국해 분쟁에 개입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해군 함정의 건조 계획은 눈여겨 봐야 할 요소라고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현재의 미중간 전쟁 발발을 제한하는 요소로 지도자들의 인식, 양국간 경제적 상호의존관계, 핵무기 보유, 전쟁 발생시 입게 될 피해 규모를 살펴보았다. 비록 전쟁단계이론의 적용만을 놓고 봤을 때는 미중관계는 3단계(전쟁 발발 가능성: 55%)에 해당되지만 위의 4가지 요소를 고려시에는 양국간 전쟁 발발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양국간의 전쟁 발발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보고서에서도 양국이 전쟁을 하게 된다면 양국 모두는 승자도 패자도 아니며 서로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관념으로 인해 양국간 전쟁 발발을 ‘있을 법하지 않은 일’(Unthinkable)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갈등과 관련된 우발적인 사건에 대한 미숙한 위기 대응은 양국간 적대행위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의 피해 규모를 고려시에 미중간 전쟁은 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를 위해 향후 요구되는 사항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위기 상황 관리능력 배양이다. 위기상황시 미중간에 상대방의 군사력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개념을 발전시키기 보다는 상황에 맞게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군사적 대안을 개발하고 나아가 상황이 심화되기 전에 갈등을 억제하고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상대국의 의도에 대한 오인을 줄여 나가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예로 2014년 9월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공중 및 해양에서의 우발적 조우 시 안전행동준칙(Rules of Behavior for the Safety of Air and Maritime Encounters)을 들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이 합의가 양국 군함정 및 항공기의 해상과 공중에서 안전을 증대시키고 양국 군사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조치라고 평가하였다.¹⁰⁰⁾ 합의서에 부칙으로 포함된 함정간

100)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Department of Defens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garding the Rules of Behavior for Safety of Air and Maritime Encounters, (November 12, 2014), Section I.

조우시 안전행동준칙(Rules of Behavior for Safety of Surface-to-Surface Encounters)에서는 양국 군용함정이 해상에서 조우 시에는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행동의 협조를 통하여 항해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¹⁰¹⁾

마지막으로 양국 해군간의 상호 교류 활성화이다. 예를 들어서 다국적 훈련¹⁰²⁾ 참가, 다자간 해군 회의, 해군 함정 상호 방문, 고위급 회담 정례화 등의 추진 등은 양국 해군 활동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상호 의심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01) Annex II, Rules of Behavior for Safety of Surface-to-Surface Encounters, Section III, IV. 구체적 행동절차는 대부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협약(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 for Preventing Collision at Sea 1972) 및 CUES의 관련 조항을 인용하고 있다.

102) 중국은 미국과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이어서 2016년도에 미국 주도의 RIMPAC 훈련(Rim of the Pacific Exercise)에 참가하였다.

참고문헌

- 가토요코, 박영준 역, 『근대 일본의 전쟁논리: 정한론에서 태평양전쟁까지』(서울: 태학사, 2003)
- 강정일, “북중동맹의 공고성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 제54호(2012)
- 국방부, 『한미동맹 60년사』(국군인쇄창, 2003)
- 김기정,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의 역사적 원형과 20세기 초 한미관계 연구』(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3)
- 김기주, 황병선, “센카쿠(다오위다오) 열도 영토분쟁을 둘러싼 일중간 전쟁 발발 가능성 전망,” 『국제정치논총』 제53집 2호(2013)
- 김경창, 『동양외교사』(서울: 집문당, 1989)
- 김덕기, “중국의 잠수함 전력 증강과 전략적 함의,” 『해양전략』 제159호(2013)
- 김동수, “미중관계와 신동북아 질서,” 『CHINA 연구』제18집(2015)
- 김민석, “워싱턴 체제의 성립과정과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2
- 김원모, “미중관계의 이론, 실제, 전망,” 『글로벌정치연구』 제9권 1호(2016년)
- 김정현, “한국해군이 지향해야 할 해양전략,” 『전투발전연구』 제16호(2009)
- 김종태, 장지홍, “미국 국방예산운영 효율화정책 동향과 시사점- 전략관리계획서(SMP)를 중심으로,” 『주간국방논단』 제1575호(2015년)
- 박경우, “해군군비경쟁과 전쟁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년
- 박병철, “정권교체기 미중관계와 한미동맹,” 『통일전략』 제15권 제2호(2015)
- 박영준, “인간, 국가, 국가체제 그리고 일본의 전쟁,” 『국제정치논총』 제45권 제4호(2005년)
- 박재목, “태평양전쟁으로 가는 길,” 『호서사학』 제12집(1984)
- 박창권, “미국의 지역내 패권경쟁 가능성과 우리의 전략적 선택 방향,” 『전략연구』 제57호(2013)
- 변창구, “미·중 패권경쟁과 남중국해 분쟁: 실태와 전망,” 『한국동북아논총』 제79호(2016)
- 손병권, “루즈벨트와 미국의 국제주의로의 전환,” 『동서연구』 제19권 1호(2007)
- 야마다 아키라(山田朗), 윤현명 역, 『일본, 군비확장의 역사: 일본군의 팽창과 붕괴』(서울: 어문학사, 2014)
- 오수진, “자원전쟁으로서의 태평양전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년
- 이지원, “일본의 동아시아 패권정책과 미국의 견제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년
- 임경한 외, 『21세기 동북아 해양전략』(서울: 북코리아, 2015)

- 윤승원, “구조적 이론을 통한 동북아시아 지역 국제체제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7년
- 장은상, “태평양전쟁의 원인”,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년
- 정호섭, 『해양력과 미일 안보관계』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1)
- 최우선, “미중관계와 한국의 전략”, 『주요 국제문제 분석』 No.2015-50(2016)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5 동아시아전략평가』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5)
- 황보종우 편저, 『세계사사전』 (서울: 청아출판사, 2003)
- 황병선, “민군관계와 군사전략의 공세성”, 『한국군사학논집』 제70권 제2호(2014년)
- 황병선, 김현승, “태평양전쟁은 어떻게 시작되었나?-미국의 오랜지전쟁계획과 일본의 일본제국국방방침”, 『합참』 제60호(2014)
- 허 임, “세력전이 관점에서 바라본 태평양전쟁 원인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년
- 후지와라 아키라, 서영식 역, 『일본군사사』 (서울: 제이앤씨, 2013)
- Andrew F. Krepinevich, Jr, “How to Deter China: the case for Archipelagic Defense”, 『Foreign Affairs』94(2) (2015)
- Baer, *One Hundred Years of Sea Power: The US Navy, 1980-1990*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6)
- Clyde and Beers, *The Far East: A History of the Western Impact and the Eastern Response, 1980-1965* (Englewood Cliff New Jersey : Prentice-Hall, 1966)
- David C.Evans and Mark R.Peattie, *Kaigun: Strategy, Tactics and Technology in the Imperial Japanese Navy 1887-1941*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97)
- David C. Gompert, “War with China: Thinking Through the Unthinkable”, 『RAND CORPORATION』(2016)
- David Shambaugh, “China Engage Asia”, 『International Security』29(3)(Winter, 2004/2005)
- Dorothy Brog, Shumpei Okamoto eds, *Pearl Harbor as History: Japanese-American Relations, 1931-1941*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3)
- Edward S. Miller, *War Plan Orange: The U.S. Strategy to Defeat Japan, 1897-1945* (Annapolis, MD: Naval Institute Press, 1991)
- Gregory Kulacki, “The Risk of Nuclear War with China: A Troubling Lack of Urgency”, 『Union of Concerned scinetists』(2016)
- George Modelski and William R. Thompson, *Seapower in Global Politics, 1494-1993*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8)

- George W. Baer, "U.S. Naval Strategy 1890-1945,"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44, No. 1(1991)
- Henry Kissinger, *Diplomac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94)
- James L. Richardson, "Asia-Pacific: The Case for Geopolitical Optimism," 『The National Interest』38 (1994/95)
- Jerram Barrs, *Who are the peacemaker?: The Christian Case for Nuclear Deterrence* (New York: Permission of Intervarsity Press, 1983)
-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Norton, 2003)
- Kenneth N. Waltz, *Man, the States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1)
- Kim, Young Hum, *American Frontier Activities in Asia: US-Asian Relations in the Twentieth Century* (Chicago: Nelson-Hall, 1981)
- Mark R. Peattie, *Sunburst: The Rise of Japanese Naval Air Power, 1909-1941*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2001)
- Jonathan Marshall, *To Have and Have Not: Southeast Asian Raw Materials and the Origins of the Pacific Wa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Department of Defens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garding the Rules of Behavior for Safety of Air and Maritime Encounters.
- Norman Polmar, *Aircraft Carriers: A History of Carrier Aviation and Its Influence on World Events Vol. 1, 1909-1945* (Dulles: Potomac Books, 2006)
- Paul D. Senese and John A. Vasquez, *The Steps to War: An Empirical Stud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 Roger Chesneau, *Aircraft Carriers of the World, 1914 to the Present* (Revised Edition, London: Arms and Armour Press, 1992)
- Ronald O'Rourke,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6
- Scot MacDonald, "Evolution of Aircraft Carriers", 『The office of the chief of Naval Operations Department of the navy』(1964)
-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 base, "Data for all countries from 1988-2015 in

constant USD” <https://www.sipri.org/sites/default/files/Mllex-constant-USD.pdf>

SIPRI, *SIPRI YEAR BOOK 2015*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Tellis, Ashley J, “CFR Report: U.S. Strategy should Balance not Assist China’s Ris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2015)

T.E. Vadneym, *The World Since 1945* (Penguin Books Press, 1987)

U.S. Department of Defense, “Asia-Pacific Maritime Security Strategy: Achieving U.S. National Security Objectives in a Changing Environment”, 『Washington, D.C.』(2015)

U.S.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The PLA Navy: New Capabilities and Missions for the 21th Century”, 『Washington, D.C.』(2015)

William D. O’Neil, “Interwar U.S. and Japanese National Product and Defense Expenditure” 『The CNA Corporation』(2003)

Zheng Bijian, “China’s Peaceful Rise to Great-Power Status”, 『Foreign Affairs』 84(5)(2005)

『동아일보』, 2016년 2월 1일

『조선일보』, 2016년 5월 11일

『중앙일보』, 2009년 3월 12일

『중앙일보』, 2016년 8월 29일

『연합뉴스』, 2009년 3월 13일, 2015년 10월 27일, 2016년 7월 11일, 2016년 9월 8일.

『한국일보』, 2013년 12월 15일, 2015년 11월 6일

www.navy.mil/submit/display.asp?story_id=94794

<http://www.dodbuzz.com/2016/04/07/heres-the-navys-81-billion-5-year-shipbuilding>

Abstract

Prospect for the Outbreak of War between U.S and China by Comparing of the U.S-Japan Relationship in the World War II Era and the Modern U.S-China Relationship

Kim Tae-sung*

This paper aims to use crossover analysis to uncover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U.S-Japan relationship in the World War II era and the modern U.S-China relationship, and to forecast the possibility of the outbreak of war between U.S and China by applying the steps to war theory.

The steps to war theory argues that the probability of the outbreak of war between two states within five years would approach 90 percent, if they have ongoing territorial dispute, alliance, rivalry, and arms race.

The comparison exposes some similarities with the territorial dispute, alliance, rivalry, but reveals dissimilarities with arms race. U.S-Japan relationship in the World War II era had the arms race, which does not exist the modern U.S-China Relationship.

The result of comparison is that the probability for the Outbreak of War between U.S and China correspond to third stage(Risk Level). it means that the probability for the Outbreak of War between U.S and China is 55%. But, There are four elements(① Perception of Leader ② Mutual dependence of economy ③ Possession of nuclear weapon ④ Ravages of war) that reduce the probability for the Outbreak of War.

Considering the four elements, the probability for the Outbreak of War between U.S and China is a slim chance. But the probability for the Outbreak

* Lieutenant Commander, Republic of Korea Navy, ROK Naval Academy.

of War between U,S and China is excluded because of territorial dispute, alliance, rivalry. So, This paper suggests three points, (① Developing military options ② Reducing the misconception of intend, ③ Promoting navy exchanges) to prevent of Outbreak of War.

Key words : The U,S-Japan Relationship in The World War II Era, The Modern U,S-China Relationship, The Steps to War Theory

논문접수 : 2016년 9월 30일 | 논문심사 : 2016년 10월 14일 | 게재확정 : 2016년 10월 28일